



전기차·바이오 분야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본격 추진

- 「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」 및 「바이오 생산부지 할당 계약」 체결
- 한·사우디 정상외교 성과 계약·양해각서(MOU) 77건(446억 불) 공동 이행 점검키로

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15일(금) 17시,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(Bandar Ibrahim Alkhorayef)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-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공동 점검하고 후속 성과를 논의하였다.

알코라예프 장관은 지난 10월 사우디 정상 순방 이후 한국을 첫 방문한 고위급 인사로서 방 장관은 이번 산업장관 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과 이번 10월 정상 순방을 통해 양국이 체결한 총 7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등 446억 불 규모의 경제 성과가 원만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, 양국 간 성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.

* 한-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: ('22.11) 290억 불, 26건, ('23.10) 156억 불, 51건

한편, 방 장관은 조선, 자동차 등 최근 사우디 내 설립 중인 합작공장 설립이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, 그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광물 분야에서도 핵심광물 가공 및 재자원화 등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산업장관회담 직후, KG모빌리티와 사우디 오토모빌기업(SNAM) 간 「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」와 지엘라파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(MODON) 간 「바이오 생산부지 할당 계약」이 양국 장관 임석하에 체결되었다. KG모빌리티는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협력사업을 내연차에서 전기차까지 확대하였으며, 지엘라파 역시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 계기에 체결한 「제약분야 협력 양해각서」('22.11 체결)의 후속 성과로서 금번 계약이 체결되었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	책임자	과 장	권현철 (044-203-5720)
	중동아프리카통상과	담당자	사무관	김태진 (044-203-5721)

1. 한-사우디 산업장관 회담 개요

□ (일 시) 2023. 12. 15.(금) 17:00 ~ 18:00

□ (장 소) 서울 포시즌스 호텔

□ (수석대표) ^한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^{사우디}산업광물자원부 장관

<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인적사항 >

▷ 성명 :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(Bandar Ibrahim Alkhorayef)

▷ 주요이력

- '19 ~ 현재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
- '02 ~ '19 알코라예프 그룹 이사회 멤버
- '13 ~ '19 Abdullah Ibrahim Alkhorayef Sons 회장 겸 CEO

2. 한-사우디 산업장관 회담 계기 체결 업무협약

① 전기차 신규 생산 협력 양해각서(^한KG모빌리티-^사SNAM*)

* SNAM(Saudi National Automotive Manufacturing) : 사우디 오토모빌 기업

○ '25년 토레스 EV 500대를 시작으로 전기차 현지 생산 추진

* KG는 '24.上부터 沙 현지 조립공장에서 렉스턴 스포츠·SUV 등 내연차 생산 예정

○ 사우디 정상 순방('23.10) 계기 체결한 “공급망 구축 MOU”의 추가 성과

② 바이오 생산부지 할당 계약(^한지엘라파-^사MODON*)

* MODON(Saudi Authority for Industrial Cities and Technical Zones) :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

○ 지엘라파 바이오 기술 이전을 통한 사우디 내 의약품 생산 현지화를 위해 사우디 수다이크 지역에 공장 용지 확정을 위한 계약 체결

○ 사우디 왕세자 방한('22.11) 계기 체결한 “제약 분야 협력 MOU” 후속 조치이며, 내년 중 법인 설립 및 공장 착공 예정